

소설에 담은 큰스님들의 '큰 구도 궤적'

《고승열전》 시리즈 10권 완간한 윤청광씨



이땅의 근대불교사에 지울 수 없는 발자취를 남긴 큰스님들의 일생을 한 분 한 분씩 열 편의 장편소설로 엮은 《고승열전》 시리즈 1차분이 완간됐다. 광범위한 호응을 얻은 바 있는 불교방송의 라디오극을 소설로 재정리한 이 시리즈는, 열 분 큰스님들의 큰 구도 해석을 치밀한 자료조사와 깊은 열정으로 생동감 있게 복원하고 있다.
윤청광씨.



겉보기에 아무리 평범한 사람의 일생이라도 나름의 드라마틱한 궤적을 담고 있게 마련이다. 더구나 속세를 버리고 삭발출가한 스님들의 이야기는 그 범상치 않음으로 인해 듣는 이에게 극적인 감동을 준다. 최근에 완간된 윤청광씨(53, 방송작가)의 《고승열전》시리즈는, 그중에서도 이땅의 근대 불교사에 지울 수 없는 발자취를 남긴 큰스님들의 일생을 한 분 한 분씩 열 편의 장편소설로 엮고 있어 흥미롭다.

10여년전 불교잡지에 일화 연재로 시작

“큰스님들의 삶의 편린을 추적해가는 과정은 그야말로 정신이 번쩍번쩍 나는 일이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상사에서까지 가슴을 치는 대목들을 수도 없이 발견할 수 있었어요. 척박했던 시대에 그만큼 아름다운 분들이 계셨다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윤청광씨는 열 분의 큰스님들 중 애착이 가지 않는 이가 단 한 분도 없다며 감회를 표한다. 윤씨가 본격적으로 큰스님들의 일생을 취재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1년간 불교잡지 《법륜》에 고승들의 일화를 연재하면서부터. 그로부터 10년 뒤인 90년 5월 불교방송 개국과 함께 윤씨가 집필한 연속극 《고승열전》이 전파를 타면서 광범위한 호응을 얻었고, 그것을 소설화한 결과물이 92년부터 차례로 간행돼 오늘에 이르렀다.

청담, 효봉, 만암, 동산, 금오, 만공, 전강, 고암, 경봉, 용성 등 속인들에게도 귀에 익은 큰스님들의 생애를 고스란히 복원한 이 책들은 그분들이 제각기 가장 큰 가르침으로 삼았던

법구들을 제목으로 삼고 있다. 《마음에 타는 불 무엇으로 피려는고》 《그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마지막 입는 옷에는 주머니가 없네》 《벼슬도 재물도 풀잎에 이슬일세》 《큰생각 크게 먹고 크게 살아라》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 만나서 괴롭나니》 《웃음을 밝히면 어둠은 사라진다》 《도를 묻지 말고 나눠주며 살게나》 《물처럼 사노라면 후회 없으리》 《작은 술씨가 낙락장송 되나니》 등이 그것들이다.

“큰스님들의 제자, 신도, 도반, 친구 등 제가 일일이 만난 사람만도 300명이 넘어요. 특히 스님들은 한 장소에 계시지 않고 늘 옮겨다니시기 때문에 취재에 애를 먹었지요. 여러 사람들에게서 채집한 자료들을 연대순으로 꿰는 작업이라서, 한 스님만 빠져도 그 시공간이 공백으로 남게 되는 것도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불교를 만나 삶이 바뀌었다”

윤씨는 그 만만찮은 자료조사와 하루 30매씩 배당되는 극본, 게다가 겹치기로 말고 있는 출판·문화계의 여러 중재들에 시달리던 중 급기야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기까지 했다. 그때가 93년 9월이었고, 그를 계기로 18개월 가량 극본 집필을 쉬면서 그간 방송된 것들을 소설로 정리하는 작업을 차분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

“지난 2월부터 다시 방송되고 있는 《고승열전》은 이번에는 과거로 한참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진각국사부터 일연, 신돈 등의 일대기를 그릴 생각입니다. 역사 속에서 잊혀지

나 왜곡돼버린 그분들의 생애를 발굴하고 바로잡아야지요.”

방송극본을 제때 제때 대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을 소설화해야 하므로 윤씨의 일은 이중 작업이다. 또 윤씨는 현재 출판문화협회 부회장과 방송위원회 심의위원, 법정스님이 이끄는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운동 간사, 동국출판사의 경영자 등으로 다방면의 정력적인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고승열전》에 대한 윤씨의 열정은 지칠 줄 모른다.

“체력이 허락하는 한 이 일을 계속할 겁니다. 한 분의 생애라도 더 정리해야지요. 피곤하기는 한정없지만 행복합니다. 불교를 만나

인생이 바뀌었어요. 커다란 보너스를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동국대학교 학보사 기자로 있으면서 불교 경전을 만난 윤씨는 대학 3학년 때 출가의 뜻을 품고 선산에 인사드리러 고향에 들렀다가 어머니에게 붙들려 그 뜻을 접은 경험이 있다. 청담스님이 강조했던 ‘자비무적(慈悲無敵)’이라는 법구를 가장 좋아한다는 그는, 자신의 방송극을 듣거나 소설을 읽은 이들이 전하는 ‘기쁜 깨우침’의 편지나 전화를 접할 때마다 없던 힘이 저절로 솟는다고 한다.

—한 강 기자

알림

본지 '서평·신간소개' 안내의 말

《출판저널》은 국내에서 출간되는 온갖 종류의 책 가운데 출판의 의미가 있거나 소개 가치가 높은 책들을 선정, 서평·저자 인터뷰·대담·신간 읽기·신간 리뷰·출판화제 등 다양한 형식으로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출판저널》은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편집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출판사에서 정성껏 만든 신간도서를 보내 주시면 책의 성격에 따라 여러가지 방식으로 저희 지면에 반영하게 됩니다. 《출판저널》을 통해 좋은 책을 보다 많은 독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출판사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신간도서 출간 즉시 간단한 '보도자료'와 함께 우편 또는 인편으로 보내주시면 어떤 형태로든 신속하고 성실하게 다루어 드립니다.
2. 현재 기획·제작중이거나 번역중인 책은 출간 전이라도 비중에 따라 적절한 지면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출판저널》 편집부